

## 25. 사자 굴 사건 전말

2012. 6. 1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빛 새벽 시간을 맡고 있는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 6장 사건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5장 사건을 조금 이야기 하고 6장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굴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흥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예언적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단6:21,22]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답: 다니엘서 5장은 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셨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파멸이 온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5장이 사건입니다. 벽에 쓴 글씨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는데, 메네는 화폐 단위인 므나와 통하고 데겔도 화폐 단위인 세겔과 통한다고 합니다. 우바르신의 우는 접촉자 “그리고”이며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인데 베레스가 쪼개진 것을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반 세겔에 해당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선고의 글씨가 화폐 단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세상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으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을 표상하는 머리가 황금이잖아요. 2장 공부를 할 때 말했지요. 세상 역사는 황금만능주의가 주장한다고요. 그 황금만능주의적 사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그 심판 선고문이 화폐단위와 관련된 낱말을 사용하셨으니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나아갈 때 이르는 결과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때보다 훨씬 더 물질만능주의입니다. 심판의 선고가 멀지 않은 것 같네요.

2. 벨사살 왕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지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답: 예, 그날 밤이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입니다. 점토판을 읽은 결과로 확인된 날짜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점령지의 왕들을 후대했거든요. 그런데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성을 점령한 선봉장이 구바루였는데, 구바루의 아버지가 벨사살의 군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바루가 개인의 복수 차원에서 벨사살을 죽인 것으로 봅니다. 그가 마침 바벨론을 점령한 점령군 사령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

스는 역시 고레스에 의하여 후대를 받았던 것 같네요. 세상은 그렇게 죽고 죽이고 복수하고 복수 당하고 그런 악순환 속에서 끝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정신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마지막 심판 날에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 하였도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청자들께서도 이런 판결을 받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된 사람을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했는데, 그의 정체는 확인되었습니까?

답: 메대 사람 다리오는 다니엘서 5장과 6장을 잇는 다리가 되네요. 그때 그의 나이가 62세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레스의 장인인 키(시)악사레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어떤 학자들은 고레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 정복의 선봉장이었던 구바루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학자들 사이에 키악사레스 쪽이 우세합니다. 그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아직도 전장에 있기 때문에 그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점령지 바벨론과 그 영토를 통치한 것 같습니다. 그는 만 일 년을 통치하고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가 6장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지요.

4. 다니엘 6장은 유명한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진 사건이지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복음을 이루는 과정에 어떤 경우를 나타내는지요?

답: 다니엘은 하나님의 참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가 다스리는 120도를 총괄하는 총리로 발탁했습니다. 부총리 두 사람을 두어서 각각 60도를 관리하도록 하고 다니엘은 그들을 지휘하며 120도 전국을 총리하게 했지요. 아마도 다리오는 바벨론에서 총리로 일한 다니엘의 행정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했고 다니엘의 행적으로 볼 때 그가 탁월한 관리였던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고 전대의 나라에 포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 점령국 사람들이 불만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총리와 관리들은 연합하여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 그를 추방할 궁리를 합니다. 단6:4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 틈, 허물, 그릇함이라는 말들은 뼈가 있는 단어입니다. “틈”은 “일라”인데 “구실,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에서 법적으로 고소할 어떤 근거를 말하고요, “허물”은 “세하트”인데, 업무상의 부패한 행동이나 속임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릇함”이라는 말은 “살루”입니다. 그것은 실수로 빚어진 업무상의 차질이나 과오를 뜻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얻고자 하였으나”라는 말은 “베아”인데 “열심히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들이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하여 흔히 하는 표현대로 눈에 불을 켜고 살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다니엘과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원수의 땅, 곧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 틈, 아무 허물 아무 그릇함이 없는 생활을 하여 사단이

고소한 기회를 만들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5. 그런데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신앙 양심적으로 거리낌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생활해야 하겠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떠나서 자신의 삶으로만 그렇게 생활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다고 증언했으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결국 그들은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지도록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무 허물이 없는데 어떻게 결국 사자 굴에 던지게 되었지요?

답: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범망에 걸리도록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의논합니다. 단6:5에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연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국법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요를 당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법을 범할 때 잡아넣기로 한 것이지요. 이것은 다니엘을 잡아넣는데 100%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언젠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이런 경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6.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경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될 어떤 사실을 예언적으로 나타내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씀이군요?

답: 예,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미 지나온 역사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경험이나 에스더서에 나타난 사건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 미리 보여주면서 그런 일에 대하여 합당한 조처를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이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니엘은 안전하고 그를 모함한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하려고 한 그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지요.

7.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시지요. 애청자들 중에는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 예, 그렇게 해야지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음모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귀가 솔깃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시겠어요. 단6:6~9절입니다.

[단6:6~9]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보십시오. 왕을 신이 되게 하는 법을 만들지요. 왕은 그 내용을 보니 흐뭇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거짓말을 했지요. “모든 총리와”라고 말해서 다니엘도 그 법을 만드는 일에 가담한 것처럼 말했거든요. 아마도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을 것인데, 그 다니엘도 함께 그렇게 법을 만든다고 하니 더욱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 있어서 음모를 눈치 채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이제 국법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정면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령이 아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오직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하고 섬기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오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명시하셨지요. 당연히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선포되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아”하던 사람들이 당장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버렸지요. 그제야 왕이 음모에 빠진 줄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니엘을 구하려고 종일 애를 썼지만 한 번 정하면 왕 자신이라고 변개할 수 없는 메데 바사의 법령을 따라 다니엘을 사자 굴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굴을 큰 돌로 막고 왕이 어인을 치고 귀족들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유는 왕 몰래 귀족들이 다니엘을 달리 해치지 못하게 한 것이고, 또 귀족들은 자기들 몰래 왕이 다니엘을 살려주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왕은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16절) 왕일지라도 속수무책입니다. 오직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살리는 조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왕이 고백한 것이지요.

7.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애청자들이 다 알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알려면 다니엘 6장을 읽으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어떤 예언적 의미가 있는지요?

답: 아주 엄청난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밤에 잠을 설치고 자기를 즐겁게 하던 모든 것을 중지하고 고민하는 밤을 보냈지만 사자 굴속의 다니엘은 평안한 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가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알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다니엘 같지 못한 것 같아서 황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아침 일찍 굴을 찾은 왕과의 대화는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단6:20~23입니다.

[단6:20~23]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21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3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사자 굴에 던지게 했지요.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다 사자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사단의 상징입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벧전5:8) 사단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에게 내어주기 위하여 음모를 할 것인데요, 계시록 13장에는 생기가 있는 우상을 만드는 사건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그러네 이 다니엘 6장의 다리오 왕이 자기의 계획은 아니지만 30일 동안 산 우상이 되었습니다.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금지되었지요. 다리오만이 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에게만 구하라는 법을 만들었지요. 것처럼 역사의 종말에 그런 우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계시록 13:11~15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느냐는 결정에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물론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 괜찮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불 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부인하였으니까요. 창조주를 부인하면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한 그 존재를 반납하고 존재하라고 하시거든요. 당연하지요. 창조주 없이도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니까요. 그렇게 존재를 반납하면 존재를 상실하게 되지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사자 굴에 던져져서 죽은 음모자들의 최후가 최후 심판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지요.

8.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에 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사건이 있을 것인데 그 사건의 성경이 다니엘서 6장의 사건과 흡사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며,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표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 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경제권이 박탈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아매는 상태가 동일하지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핍박받을 때 주로 그 내용이 우상숭배 문제였습니다. 초기 교회에도 로마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요. 다니엘도 그렇지요. 계시록 13장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그 양상이 달라졌지요. 교회가 정권과 교권을 장악하면서 정권을 가진 교권이 지도하는 대로 순응하지 않는 교인들을 정치적 권력과 교권을 휘둘러서 핍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니엘 시대나 초기 교회 시대와 그 양상이 달라졌지요. 그러나 그 핵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들의 만든 법이 대결이 있습니다. 계13장도 우상숭배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에스더 사건에도 있습니다. 표 나게 우상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지만, 이면에 역시 우상숭배와 하나님 경배의 대결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고 여호와라는 말도 없습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한 번 보시지요. 예4:13,14입니다.

[예4:13,14]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기에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라고 했지요.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에스더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3일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라고만 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예언적 의미가 있지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왕에게 한 말은 다니엘을 포함한 사람들의 말과 의가 같습니다.

[예3:8] 하만이 아하수어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흠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말씀도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하여 그들의 법률을 언급하지요. 곧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도 다니엘 6장과 같이 계시록 13장의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건 예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창조주를 올바르게 경배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르드개처럼 다니엘처럼 성경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철저한 신앙으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올바르게 알고 전적으로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딤후1:12 “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도 이런 확신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니엘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하겠지요.

9.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이런 신앙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로 마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사단이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미리미리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의 터전에 굳게 서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바울 같은 신뢰로 충성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오늘도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